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과장)

1. 특효약도 효과가 없는 살모넬라균 검출

설사증의 치료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특효약 「뉴-키노론」의 투약에도 효과가 없는 살모넬라를 동경도립위생연구소가 검출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2월에 발행되는 동소학회지에 게재되었다.

「뉴-키노론」 내성 살모넬라의 보고는 처음으로 그와 유사한 내성균도 지난 5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뉴-키노론 내성 살모넬라가 폭발적으로 퍼질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동경도립위생연구소의 마쯔시타(松下) 미생물부 주임들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동경도내 환자에게서 분리한 살모넬라 1만 2천7백49개의 균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995년 한 개의 균주가 「뉴-키노론」 등 6가지 종류의 약제에 대한 내성균이었다고 하였다. 더욱이 「뉴-키노론」과 구조가 많이 닮은 「나리지크스산」이라 불리는 약에 내성이 있는 균의 검출도 1995년부터 급증하여 1998년에는 7%, 1999년에는 5%를 차지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식중독 등의 살모넬라 감염증에는, 「뉴-키노론」이 특효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 치료가 곤란하여 장기화되면서 중병으로 바뀐다.

한편, 「나리지크스산」 내성균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한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도 「뉴-키노론」내성으로 변화된다. 통상의 살모넬라보다 1억배 이상 내성을 갖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쯔시타 주임은 「뉴-키노론」 내성균이 확산될 소지가 많다고 경고하였다.

「나리지크스산」은 본래 인체용 약이었으나, 「뉴-키노론」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주로 닭 등 가축의 건강관리에 사용되고 있어, 내성균은 가축의 장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유전자 재조합 미국산 옥수수(스타링크)의 사용수준 감소

일본 농무성은 지난달 2월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사료용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스타링크」의 모니터링 조사에서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료공장 등에서 채취한 42개의 옥수수 검체 중에서 60% 이상인 19개의 검체에서 「스타링크」가 검출되어 혼입율은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0.19%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제까지 2회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혼입율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일본의 농무성은 미국에서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의 회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채취한 옥수수는 일본과 미국이 수출전 검사 방법으로 변경기로 합의하기 전인 2000년 12월 중순 이전에 운반된 옥수수라고 하였다. 브로일러에 스타링크를 배합한 사료를 급여한 브로일러 시험결과에서 발육과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근육, 간장, 혈액의 조사에서 유전자가 재조합된 DNA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양계**